『서영이』 피천득

第12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

暗誦部門\_指定原稿　テーマ３.エッセイ

（文字数－372）

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.

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서영이다.

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.

서영이는 나의 딸이요,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.

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다.

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.

값싼 센티멘털리즘에 흐르지 않는, 지적인 양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.

버릇이 없을 때가 있지만,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 것이다.

나는 남들이 술 마시느라고 없앤 시간, 바둑 두느라고 없앤 시간,

돈을 버느라고 없앤 시간, 모든 시간을 서영이와 이야기 하느라고 보냈다.

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

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.

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,

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, 내 생애에 가장 행복된 부분이다.

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.

‘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고 싶다'고.

지금 나에게 이 축복 받은 겨울이 있다.

『瑞英(ソヨン)』 ピ・チョンドゥク（皮千得）

【参考】原稿テーマ３.エッセイ和訳(非公式)

私の生涯には二人の女性がいる。

一人は私の母で、もう一人は瑞英である。

瑞英は、私の母が神様にお願いして私に送ってくださった、大切な贈り物だ。

瑞英は私の娘であり、私とウマが合う友人である。

また、私が最も尊敬する女性である。

自尊心が強く、情緒豊かで頭脳明晰である。

安っぽいセンチメンタルリズムに流されない、知的であることを鼻にかけない健康で明るい少女である。

礼儀に欠けることもあるが、もう少し年を重ねれば大丈夫だろう。

私は、人が酒を飲むことでなくした時間、碁をうつことでなくした時間、金もうけでなくした時間、すべての時間を瑞英と話すことで過ごす。

おそらく、私が本とともに過ごした時間より

瑞英と一緒に過ごした時間の方が長かっただろう。

そして、この時間は私が生きた真の時間であり、

美しい時間であったことはもちろん、私の生涯で最も幸せな部分である。

私にこんな願いがあった。

‘私が老いて瑞英が大きくなったら、雪の降るソウルの町を歩きたい’と。今、私にはこの祝福された冬がある。

-이：詩音で終わる名前の年下・目下の人を呼ぶ際に、名前をつけて語調を整える語。

버릇이 없다：礼儀をわきまえない、ぶしつけだ。